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6호 [루체 제23178호] 주제99 (2010)년 8월 14일 (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

중국항일혁명렬사장율화동지의가족이꽃바구니를보내여왔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조국해방전선에서죽은65돐에맞아꽃바구니를보내여왔다.
해방65돐에맞아중국항일꽃바구니의행기에는'위대한'있다.
혁명렬사장율화동지의가족이령도자김정일동지의건강을삼가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

제1024호

주제99(2010)년8월11일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50돐을맞으며기념주화를발행함에 대하여

전체군대와인민이조선로동당창건65돐과조선로동당대표회를우리당과조국평양시에걸어빛날경사로웃길게맞아하기위하여강성대국건설의모든전선에서대고조진군의불바람을일으켜나가고있는격동적인시기에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선군혁명령도를시작하신50돐을맞아하게된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주제49(1960)년8월25일선군혁명령도의첫자속을새기신것은총대로개최되고전진하여온조선혁명을총대로끌까지완성하시려는철석같은신념과의지의힘있는선언이었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선군혁명령도의길에나서심으로써우리혁명의백승의역사와전통이꽃듯이이어지게되었으며조국민족,우리식사회주의의앞길에는끝없이밝은미래가펼쳐지게되었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우리인민군대를무적필승의백두산혁명군으로억세게키워주시고국방력을백방으로다져주시었기에우리공화국은그어떤강적도변집할수없는자주와정의의성세로높이솟아오르고그어떤천지동파에도꼬리없이우리식사회주의의한걸음으로억세개나마갈수있게되었다.

정력적인선군혁명령도로조국의부강번영과주체혁명위업완

성의확고한답보를마련하신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불멸의업적을후손만대에걸이빛내여려는것은우리군대와인민의확고부동한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께서선군혁명령도를시작하신50돐을뜻깊게기념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1.기념주화《선군혁명령도50돐》을발행한다.

기념주화《선군혁명령도50돐》은금화와은화로발행

할것이다.

2.기념주화《선군혁명령도50돐》의그림풀이와규격,조성을승인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각과해당기관들은이정

령을집행하기위한실무적대책을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평양

오각별을장식하였다.

금화의뒤면에는중심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부각하고양옆에순도,무게를

밝혀있으며우물분에《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은행》

이라는글자와아래부분에발

행년도를새겨넣었다.

금화의규격은직경35mm,

무게2g이다.

금화는순금이다.

2.은화

그림풀이는금화와같다.

은화의규격은직경40mm,

무게3g이다.

은화는순은이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

친필현판과백두산3대장군의현지지도
사적비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건립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친필현판과백두산3대장군의현지지도사적비를짧은기간에훌륭히건립하였다.
준공식이13일에진행되었다.

리태남내각부총리,김정빈

김정숙평양제사공장,판

부총리,김정숙평양제사공장,판

온 겨레는 거족적인 통일애국성전에 총궐기하여 내외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

북파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형제들!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새월은 훌륭한 예술

다섯번짜의 네를 훌륭한 예술을

나타낸 것이다.

8. 15 해방의 그날 우리 민족은 열

마나 감격과 회망에 넘쳐있었던가.

그때 온 겨레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새 세상에서 마음껏 자주적 삶과 창조

적 생활을 향유할 꿈으로 부풀어 있었으며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두동강과 민족분열

의 비극을 겪을 줄을 누구도 몰랐다.

더우기 외세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동족끼리 총부리를 맞대고 짜워 수백만

의 치중한 생명을 잃고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분별의 고통속에 혁전쟁

위험을 당하며 통일을 펴자며 웨치며

살게 될을 파연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는가.

오늘 세상을 둘러보면 제 2 차 세계대

전종결과 함께 렘강들에 의해 분열되었던

나라들이 모두 통일을 이루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민족만이 아

직도 분별의 아픔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제국도 아니며 우리 민족

이 같아서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수수천년 한강도에서 화목하게 살아왔으

며 벌써 오래전 통일각에 통일국가를 세

워놓고 민족의 술기와 용맹을 한껏 펼쳐온

우리 민족이 근대에 와서 이세의 침략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살이를

강요당한데다가 분별의 고통까지 당하고 있

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비극이고 치욕이다.

8. 15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운동

을 즐기자며 뛰어왔다.

그 과정에 도전과 시련인들 얼마나 많

았으며 눈물과 피 또한 얼마나 많이 흘

렸는가.

두동강난 조국을 가슴에 부여안고 이

땅을 퍼트려 적시며 통일제단의 이슬로 사

라진 유명무명의 통일에 국족들을 끊다

운 청춘들은 그 암말였던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의 거제한 불길속에

서 미친내 민족의 지향과 총의를 담은

조국통일 3 대 원칙이 7. 4 공동성명으로

발표되고 통일대회의 문들을 열었다.

특히 새 세기의 문기점에서 온 세상을

진감시킨 6. 15 북남공동선언의 혁신

적 조성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새 희망

과 새 꿈을 안겨준 일대 사변이었다.

그때 우리 겨레는 분별의 8. 15를

통일의 8. 15로 바꿀 날이 머지 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대 규모의 지상, 공중, 해상 복합전쟁연습이 지금은 그 가면마다 벗어던지고 달과 달을 이어 매일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조선동화와 조선서해, 조선남해 어디

를 보나 전쟁연습의 평원이 진동하고 화약연세가 절제 풍기고 있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 전쟁위기가 어

여자며 조성되었지만 지금처럼 텁제적으로, 전면적으로, 광란적으로 들이닥친 적은 일찍이 없다.

우리 민족이 혁전쟁의 제물로 되고 있

는 이 엄중한 사태를 누가 파연 외면할 수 있겠는가.

북파 남 사이에 하늘길, 땅길이

염려 동포형제들이 서로 오가며 정을 나

누고 협력하며 금방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여열껏 힘껏만 같은 회향과 환희속에 살

던 6. 15 시대의 감동은 꿈같은 가버

로 되었다.

6. 15와 더불어 통일의 끝은 하늘

이 열리면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의 검을

구름이 몰려오고 통일이 이단시되며 동

족대결이 『국지』로 되고 있는 남조선은

지난날의 암울한 암흑의 군사파괴로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북남수뇌분들이 모처럼 마련했던 화해

와 협력, 통일의 끝자리가 미지근한 대결

과 대결로 얼어붙고 당장 전쟁이 터질

위험계선에 따른 오늘의 협약한 현실 앞

에 실로 비운을 금할수 없다.

통일의 시계비는 분별과 대결의 원

시점으로 되돌려졌다.

시대와 역사의 전제 조선민족을 향해

묻고 있다.

외세의 침략전쟁책동과 동족끼리 간음모

에 놀아나는 사대째 국노들의 반통일대결

판란을 파연 언제까지 보고만 있겠는가.

북파 남 해외의 전제 조선동포포!

우리 민족앞에 닥쳐온 현실은 매우 엄

혹하다.

지금 남조선과 조선반도주변은 북침전

연습의 불장난으로 미쳐날뛰고 있는 미

제집락군의 혁전쟁수단으로 꽉 차있다.

전쟁마당장을 찾아간다는 미국의 초대

통행 항공포함이 조선반도수역을 제집드

나들듯 빛걸내기 기여하고 미국회신전투

폭격기들의 공화국 전략적 저격들에 대한

날뛰고 있는 미령박격적 폭격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올상을

안고 모여온 군중들로 차고넘치

쳤었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의무로 한 전쟁연습과 토론회를

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

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는 공화국의 정당

한 편장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탁원으로 동계급에 혁명

의 니대들에 당파 수령을 위하여

현신을 향해 올리고는 전쟁광신

제작으로 청탁을 했던 편장

그들은 조선을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을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보람과 투쟁

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결심하여 한

다는 그들은 신심과 배짱을 지

니고 조국의 통성번역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반동보수세력의 정치적 악합

남조선에서 보수대련합 움직임이 로그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따로 존재하던 보수정당들이 『미래희망련대』와 『한나라당』이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보수당은 서로의 정치적 결탁으로 파쑈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동족대결책 등을 더욱 강화하며 나아가서 재집권의 야욕을 실현해 보려 하고 있다. 조성된 사태는 남조선 각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보민주세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낡은 제도, 낡은 생활을 보존하려는 세력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 보수대련합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적 도전이다.

사회적 진보와 발전은 새것과 낡은 것의 충돌 없는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새것과 낡은 것은 인민대중의 주자성실현에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그에 방해를 놓는가 하는데 따라 갈라진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폭넓은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는 세력은 반역적 반동세력의 반동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의 이상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발전을 억누르는 낡은 세력이다. 낡은 것의 규범은 걸고 새것으로 될 수 없다.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의 조작적 징벌은 인민대중의 정의로운 진출을 가로막고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반동공세이다.

자주, 민주, 통일은 남조선인민들의 세계적 속원이며 시대와 역사발전의 요구이다.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분

렬되어 지난 65년동안 남조선인민들은 예속파와 파쑈의 암흑지대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며 불행과 고통속에 혼매이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운동사는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으로 발전하여 왔다. 왜세가 없고 파쑈독재가 청산되고 통일된 조국에서 살아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는 예요구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

역사의 반동들의 보수대련합은 집권위기로 모면하고 재집권의 밤판을 마련하기 위한 더러운 음모의 산물이다.

들이켜보면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정의로운 진출에 의하여 독재『정권』의 권위를 침해하는 반역적 행동은 2012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노린 극우보수세력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미래희망련대』

페거리를 들이 그들대로 『한나라당』을

업고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

결국 보수대련합 험군은 집권후반기 권

력안정과 2012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를 막아야 했던 남조선은 그에 필사적으로 밟아내졌다. 남조선은

에서 지난 세기 90년대초에 구원부동보수의 집착함에 『민자당』이 조작

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군부

독재세력의 어성이었던 『민정당』페

거리를 들은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독재투

쟁으로 국가의 통치위기에서 차기 되자 3당야합으로 『민자당』을 조작하

여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그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사회의 자주적, 민

주주의 발전이 심히 억제되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보수대련합을 벗어나고 있는지도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투적 수법이다.

폭로된 바와 같이 리명박일당은 『지

방자치제선거』에서 대체로 『국

회』에서 『세종시수정안』부결, 남조

선 각계의 『4대 강정비사업』반대투

쟁 등으로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있다. 게다가 『천

주와 규탄을 받고 있다.

남조선에서 보수대련합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무리들의 악합인 것으로

하여 전도가 없다.

악질반역자들의 추악한 굴종행위

남조선에서 물리고 국제적으로도 행해와 당시를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은 충파산의 운명에 처하고 있다.

『한나라당』만으로는 위기를 모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재집권의 꿈도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 반역세당은 보수정당인 『미래희망련대』를 끌어들 이는데로 나아갔다. 『미래희망련대』 페거리를 들은 그들대로 『한나라당』을

업고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 결국 보수대련합 험군은 집권후반기 권위로운 진출에 의하여 독재『정권』의 힘으로 반역세당은 그에 필사적으로 밟아내졌다. 남조선은 90년대초에 구원부동보수의 집착함에 『민자당』이 조작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군부

독재세력의 어성이었던 『민정당』페거리를 들은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독재투쟁으로 국가의 통치위기에서 차기 되자 3당야합으로 『민자당』을 조작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한 상투적 수법이다.

폭로된 바와 같이 리명박일당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체로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부결, 남조선 각계의 『4대 강정비사업』반대투쟁 등으로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고 있다. 게다가 『천주와 규탄을 받고 있다.

얼마전 미국무성과 재무성의 『대북제재』 판

계인 물들이 남조선을 행각하였다.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맞춤형제재』에 대한 의의를 명분으로 날아들었지만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피뢰들파의 모의 판에서 미국은 저들의 대이란제재에 남조선이 함께 한 것을 강박하고 우리를 표시하고 있다.

남조선 각계는 대이란제재에 남조선이 함께 한 것을 강박하고 우리를 표시하고 있다. 그 후에는 여론들이 평화다심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정도에서 남조선 경제는 멀찌부러 아무성이다.

나라와 민족을 등진자들은 폐의 없이 외세의 존에서 살길을 찾는 법이다. 하지만 외세의 존으로 차제질이란 이처럼 수치와 피해, 모욕뿐이다.

이번에 대이란제재와 관련하여 미국과 피뢰의 공모결탁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상장과 주구주의의 수직적 속수무책에 문단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의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 불순한 흥정의 산물이다.

미국은 이번에 저들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서는 대로 피뢰들에게 대이란제재를 강요하였다. 미국의 속심은 동족압살을 위해 분별 없이 헤엄비면서 『대북제재』를 강행하는 피뢰들의 요구를 들어온 대가로 남조선을 저들의 대이란제재소동의 돌격대로 쏙여먹는 것이다.

동족대결책 동의 파란과 국제무대에서의 힘으로는 외교적 참모를 막다른 궁지에 몰린 피뢰들은 그들대로 봄에 빠진자 지구에 기록된다. 그들은 대이란제재로 인해 미국과 맞물려온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정치인들이 『한나라당』과 『민자당』을 결집해 나아갔다. 그들이 대이란제재소동의 돌격대로 쏙여먹는 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현 사태를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현식외교〉로 치르게 된 비판 대기』, 『미국과의 〈동맹〉 만족주의가 초래한 외교적 판란상』으로 개탄하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피뢰제당은 미국에 추종하다가 결국은 남침이 제기자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까지 대이란제재에 기관총으로 나아온 것은 동족압살을 기록하는 것이다. 피뢰들은 동족대결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반역세당은 동족대결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악질적인 매국역적 드러내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주로서의 저들의 수치스럽고도 가련한 처지만은 드러내보뿐이다. 역적제당이 외세의 옷자락에 빠져들면 텔랄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중요과 분노는 더욱 커가고 저들의 과열이 촉진된다.

역적제당은 친미사대적 망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대이란제재에 가담할 경우 술한 자본을 이런에 들이밀었던 남조선은 풀딱 놓게 된다.

며칠전 남조선주재 이란대사는 만일 남조선이 미국의 대이란제재 놀음에 가담한다면 『두손놓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한 반복조치를 예고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대이란제재에 남조선이 함께 한 것을 강박하고 우리를 표시하고 있다. 그 후에는 여론들이 평화다심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정도에서 남조선 경제는 멀찌부러 아무성이다.

나라와 민족을 등진자들은 폐의 없이 외세의 존에서 살길을 찾는 법이다. 하지만 외세의 존으로 차제질이란 이처럼 수치와 피해, 모욕뿐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현 사태를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현식외교〉로 치르게 된 비판 대기』, 『미국과의 〈동맹〉 만족주의가 초래한 외교적 판란상』으로 개탄하고 있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피뢰제당은 미국에 추종하다가 결국은 남침이 제기자되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까지 대이란제재에 기관총으로 나아온 것은 동족압살을 기록하는 것이다. 피뢰들은 동족대결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반역세당은 동족대결에서의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집권위기를 모면하려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악질적인 매국역적 드러내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주로서의 저들의 수치스럽고도 가련한 처지만은 드러내보뿐이다. 역적제당이 외세의 옷자락에 빠져들면 텔랄수록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의 중요과 분노는 더욱 커가고 저들의 과열이 촉진된다.

역적제당은 친미사대적 망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허영민

로씨야단체들 성명, 호소문 발표

로씨야단체들이 미 국파 남조선피뢰들의 현행 해상훈련을 규탄하여 7월 26일 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친선 및 문화협회로 쌔야협회는 성명에서 최근 조선반도를 둘러싼 친구한국과의 방

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세계

제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6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7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8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9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0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1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5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6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7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8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19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0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1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5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6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7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8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29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0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1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5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6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7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8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39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0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1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5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6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7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8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49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0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1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2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3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4회 국제인민회의 회

제55회 국제인민회의 회

